

# 일부 보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 행태 및 관리수준에 관한 비교조사연구

이민영 · 유자혜

영동대학교 치위생학과

색인 :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행태, 보건, 비보건

## 1. 서론

구강건강이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육체의 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sup>1)</sup>.

또한 구강건강은 저작기능과 발음기능 및 심미기능을 발휘하는 생활의 기본요소이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질병이면서 중요한 양대 구강병이다. 특히 치주질환은 소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구강 내에 발생하는 보편적인 질환으로서, 유년기에는 비교적 경증의 치주질환이 드물게 발생하나 청년기로부터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여 성인에서는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sup>2-4)</sup>.

이러한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치의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구강병의 발병기전과 진행과정이 규명됨에 따라 치료보다는 예방우선의 구강보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인식 또한 변화되어 예방을 통하여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유지하고 있다<sup>5)</sup>.

구강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행위의 특성을 지칭하는 구강보건행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심리적 상태 등 여러 환경이 개개인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작용하기 때문이다<sup>6)</sup>.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능력은 학령기 전에 습득하고 일생을 통해 구강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폭넓은 대인관계, 학문적 성취, 직업선택, 배우자 선택과 결혼 등의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에 있으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건강습관은 이후의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청년기의 대학생들은 성인 중기 및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 가능성이 크고, 이시기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성인 중기 및 후기의 건강행위와 이에 따른 건강한 삶의 기반이며, 또한 미래 부모로서 이들의 교육정도나 건강에 대한 태도, 실천 등이 자녀의 건강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7,8)</sup>.

그러나 현재 대학생의 치아건강은 대학이라는 자율성과 성인이라는 미명 아래 방치되어 가고 있다<sup>9)</sup>. 청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이나 건강행위는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년기의 대학생에게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 행위의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다<sup>10)</sup>.

김 등<sup>11)</sup>의 분류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청년구강보건대상 인구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학령기에 발생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축적되어 있고, 치아우식증으로 발거한 치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청년인구는 수입이 비교적 적고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여념이 없어 구강진료를 비교적 받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구강진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진 청년인구의 일부인 대학생들이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학업수행에 지장을 받고, 학교수업에 결석을 한다는 것은 대학생 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졸업 후 보건 의료인이 될 집단으로 분류되는 보건계열 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보건의료인으로서 활동하게 될 집단으로, 이들이 올바른 구강보건행태를 지닌다면 자신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여타 집단들에게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요하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2)</sup>.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보건관리 행태와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여 대학생들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2008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충청지역 Y대학에서 12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보건계열 174명(47.9%)과 비보건계열 189명(52.1%)의 총 363명(96.8%)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 2.2 연구방법

설문문항은 총 15문항으로 내용은 구강보건인식과 관리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강관리수준은 잇솔질 횟수와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 구강보건인식은 관심분야, 스케일링 여부, 구강보건교육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 2.3 통계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3.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계열차이에 따른 잇솔질 관리 수준, 구강위생관련용품 사용여부, 치과진료 관심분야는 카이제곱(Chi-square)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스케일링 인식도, 구강보건교육 필요 및 참여여부, 구강건강관리요인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성적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84.6% 이상이 1학년과 2학년이었고, 남자는 125명(34.4%), 여자는 238명(65.6%)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명(%)

특 성	구 분	명(%)
학년	1학년	220( 60.6)
	2학년	87( 24.0)
	3학년	39( 10.7)
	4학년	17( 4.7)
성별	남	125( 34.4)
	여	238( 65.6)
계열	보건	174( 47.9)
	비보건	189( 52.1)
	전체	363(100.0)

은 각각 47.9%와 52.1%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2. 성별 및 계열에 따른 잇솔질 관리 수준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는 성별에 따라 남자가 하루 평균 1회 69명(55.2%), 여자가 하루에 2회 126명(5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에 따라서는 보건계열이 2회 89명(51.1%), 비보건계열이 1회 93명(49.2%)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

잇솔질 방법은 '위아래로 닦는다'가 보건계열이 105명(60.4%), 비보건계열이 78명(41.3%)으로 나타났었다( $p<0.05$ ).

잇솔질 시간은 성별에 따라 '2?3분 이상'이 남녀 각각 96명(76.8%), 184명(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분 이내', '4분 이상', '모르겠다'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성별 및 계열에 따른 잇솔질 관리 수준 명(%)

항목	구분	성별		계열		합계
		남	여	보건	비보건	
잇솔질 횟수	0회	3( 2.4)	5( 2.1)	6( 3.4)	2( 1.1)	8( 2.2)
	1회	69(55.2)	85(35.7)	61(35.1)	93(49.2)	154(42.4)
	2회	47(37.6)	126(52.9)	89(51.1)	84(44.4)	173(47.7)
	3회	6( 4.8)	22( 9.2)	18(10.3)	10( 5.3)	28( 7.7)
	p값	**		*		
잇솔질 방법	옆으로 닦는다	17(13.6)	23( 9.7)	15( 8.6)	25(13.2)	40(11.0)
	위아래로 닦는다	82(65.6)	140(63.1)	105(60.4)	127(67.2)	232(63.9)
	둥글게 닦는다	26(20.8)	65(27.3)	54(31.0)	37(19.6)	91(25.1)
	p값			*		
잇솔질 시간	1분 이내	10( 8.0)	35(14.7)	22(12.6)	23(12.2)	45(12.4)
	2?3분	96(76.8)	184(77.3)	133(76.4)	147(77.8)	280(77.1)
	4분 이상	16(12.8)	13( 5.5)	12( 6.9)	17( 9.0)	29( 8.0)
	모르겠다	3( 2.4)	6( 2.5)	7( 4.0)	2( 1.1)	9( 2.5)
	p값	***				
식사 후 잇솔질 필요성	그렇다	72(57.6)	183(76.9)	129(74.1)	126(66.7)	255(70.2)
	그렇지않다	30(24.0)	28(11.8)	24(13.8)	34(18.0)	58(16.0)
	모르겠다	23(18.4)	27(11.3)	21(12.1)	29(15.3)	50(13.8)
	p값	***				
합계		174(47.9)		189(52.1)		363(100.0)

\*\*  $p<0.05$ , \*\*\*  $p<0.01$ , \*\*\*\*  $p<0.001$

( $p < 0.001$ ).

식사 후 잇솔질 필요성은 ‘그렇다’가 남자 72명(57.6%), 여자 183명(7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 < 0.001$ ), 보건계열 129명(74.1%)과 비보건계열 126명(66.7%)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 3.3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위생관련 용품 소지 및 사용여부

구강위생관련용품 소지여부는 ‘껌, 사탕류’가 보건계열이 78명(44.8%), 비보건계열이 115명

(6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칫솔, 치약’이 각각 69명(39.7%), 61명(32.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보건계열이 99명(56.9%), 비보건계열이 133명(70.4%)으로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하였다( $p < 0.001$ ), 또한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는 남자 84명(67.2%), 여자 148명(62.2%)로 ‘사용하지 않는다’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1$ )<표 3>.

표 3.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위생관련용품 소지 및 사용여부 명(%)

항목	구분	성별		계열		합계
		남	여	보건	비보건	
소지한	칫솔, 치약	48(38.4)	82(34.5)	69(39.7)	61(32.3)	130(35.8)
	구강양치액	82(34.5)	21( 8.8)	19(10.9)	5( 2.6)	24( 6.6)
구강관련 용품	치실	2( 1.6)	14( 5.9)	8( 4.6)	8( 4.2)	16( 4.4)
	껌, 사탕류	72(57.6)	121(50.8)	78(44.8)	115(60.8)	193(53.2)
	p값		*		**	
구강위 생보조 용품사 용여부	치실	6( 4.8)	34(14.3)	28(16.1)	12( 6.3)	40(11.0)
	치간칫솔	15(12.0)	8( 3.4)	6( 3.4)	17( 7.0)	23( 6.3)
	혀클리너	6( 4.8)	11( 4.6)	7( 4.0)	10( 5.3)	17( 4.7)
	구강양치액	14(11.2)	37(15.5)	34(19.5)	17( 9.0)	51(14.0)
	사용하지 않음	84(67.2)	148(62.2)	99(56.9)	133(70.4)	232(63.9)
	p값		**		***	
합계		125(100.0)	238(100.0)	174(100.0)	189(100.0)	363(100.0)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성별과 계열에 따른 치과진료 관심분야 명(%)

항목	구분	성별		계열		합계
		남	여	보건	비보건	
구강관 련관심 분야	충치예방	56(44.8)	84(35.3)	61(35.1)	79(41.8)	140(38.6)
	잇몸병예방	11( 8.8)	10( 4.2)	6( 3.4)	15( 7.9)	21( 5.8)
	치아미백	35(28.0)	103(43.3)	70(40.2)	68(36.0)	138(38.0)
	치아교정	23(18.4)	41(17.2)	37(21.3)	27(14.3)	64(17.6)
합계	p값			*		

\*\*  $p < .05$

### 3.4 성별과 계열에 따른 치과진료 관심분야

구강관련 관심분야는 보건계열이 치아미백 70명(40.2%), 비보건계열이 충치예방 79명(4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 <표 4>.

### 3.5. 성별과 계열에 따른 스케일링 인식도

스케일링 경험여부에 대해 성별로 알아본 결과 '예' 라고 답한 경우 남자가 47명(37.6%), 여자가 103명(43.3%)이었다. 계열로 비교시에는 '예' 라고 응답한 경우 보건계열이 69명(39.7%), 비보건계열이 81명(42.9%)으로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케일링에 대한 인식여부에서는 보건, 비보건계열 모두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가 각각 115명(66.1%), 127명(6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하다' 가 55명(31.6%), 56명(29.6%)으로 나타났다<표 5>.

### 3.6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필요 및 참여여부

구강보건교육의 필요 여부는 성별에 따라 '안 해도 상관없다' 가 남녀 각각 73명(58.4%), 140명(58.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계열에 따라서도 '안 해도 상관없다' 가 보건계열 98명(56.3%), 비보건계열 115명(60.8%)으로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6>.

구강보건교육의 참여의사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자 57.6%, 여자52.1%가 '관심 없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계열에 따라서도 보건계열 50.0%, 비보건계열 57.7%가 동일하게 '관심 없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참여 하겠다', '참여하지 않는다' 순으로 나타났다<표 6>.

표 5. 성별과 계열에 따른 스케일링 인식도

명(%)

항목	구분	성별		계열		합계
		남	여	보건	비보건	
스케일링	예	47(37.6)	103(43.3)	69(39.7)	81(42.9)	150(41.3)
경험여부	아니오	78(62.4)	135(56.7)	105(60.3)	108(57.1)	213(58.7)
스케일링에 대한 인식	필요하지 않다	3( 2.4)	7( 2.9)	4( 2.3)	6( 3.2)	10(2.8)
	하면 좋겠지만 안해도 상관없다	85(68.0)	157(66.0)	115(66.1)	127(67.2)	242(66.7)
	꼭 필요하다	37(29.6)	74(31.1)	55(31.6)	56(29.6)	111(30.6)
합계		125(100.0)	238(100.0)	174(100.0)	189(100.0)	363(100.0)

표 6.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필요 및 참여여부

명(%)

항목	구분	성별		계열		합계
		남	여	보건	비보건	
구강보건교육 필요	필요하지 않다	8( 6.4)	12( 5.0)	8( 4.6)	12( 6.3)	20( 5.5)
	안 해도 상관없다	73(58.4)	140(58.8)	98(56.3)	115(60.8)	213(58.7)
	꼭 필요하다	44(35.2)	86(36.1)	68(39.1)	62(32.8)	130(35.8)
구강보건교육 참여여부	관심 없다	72(57.6)	124(52.1)	87(50.0)	109(57.7)	196(54.0)
	참여하지 않는다	24(19.2)	45(18.9)	38(21.8)	31(16.4)	69(19.0)
	참여하겠다	29(23.3)	69(29.0)	49(28.2)	49(25.9)	98(27.0)

표 7.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주요요인 명(%)

항목	구분	성별		계열		합계
		남	여	보건	비보건	
구강건강관리 주요요인	잇솔질	61(48.8)	117(49.2)	87(50.0)	91(48.1)	178(49.0)
	정기 구강검진	31(24.8)	54(22.7)	33(19.0)	52(27.5)	85(23.4)
구강건강관심도	구강건강관심도	27(21.6)	55(23.1)	44(25.3)	38(20.1)	82(22.6)
	선천적인 면	6( 4.8)	12( 5.0)	10( 5.7)	8( 4.2)	18( 5.0)
합계		125(100.0)	238(100.0)	174(100.0)	189(100.0)	363(100.0)

### 3.7 성별과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주요요인

구강건강관리 주요요인으로 잇솔질이 남자 48.8%, 여자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열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보건계열 50.0%, 비보건계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열은 구강건강관심도가 25.3%, 정기구강검진 19.0%, 선천적인 면 5.7%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비보건계열은 정기구강검진 27.5%, 구강건강관심도 20.1%, 선천적인 면 4.2%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7).

##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가 남자가 하루 평균 1회 55.2%, 여자는 2회 5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sup>13)</sup>와 이<sup>14)</sup>의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가 여자가 3.3회, 남자가 2.6회로 가장 많다고 하였으며, 김<sup>15)</sup>의 연구에서는 잇솔질 횟수가 남녀 모두 2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남자 69.2%, 여자 79.3%였고, 하루에 3회 잇솔질 한다가 남자 14.4%, 여자 15.1%를 차지하였고, 하루에 1회는 남자 16.3%, 여자 3.9%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황<sup>16)</sup>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잇솔질 횟수가 더 많은 것과 일치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결과

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잇솔질 횟수가 많은 점은 일치하나 남녀 모두 다른 연구결과에 비해 횟수가 적게 나타난 점은 수도권지역이 아닌 지방이라는 것과 대부분 기숙사 생활 및 자취 등 독자적인 생활에 따른 자발적인 구강보건행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계열에 따른 잇솔질 횟수에서 보건계열은 하루에 2회 51.1%, 비보건계열은 하루에 1회 49.2%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김<sup>17)</sup>의 연구에서 일일 잇솔질 횟수는 평균 2.85회로 보건이 비보건의 2.05회보다 약 1회 정도가 많았으며 3회 이상 닦는 경우도 36.1%로 나타났다. 이는 김의 연구는 보건이 구강보건과 관련된 전문 계열인 반면 본 연구의 보건계열은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구강보건과는 연계성이 적은 보건계열이므로 결과는 같으나 빈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잇솔질 방법의 경우 김 등<sup>18)</sup>은 잇솔질법에서 회전법이 보건계열에서 119명(82.6%)으로 비보건 53명(38.4%)보다 약 2.5배 이상 많이 채택하고 있었으며, 치경부 마모증을 유발하는 횡마법은 각각 2명(1.4%), 29명(21.0%)으로 비보건계열에서 높게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은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잇솔질에 대한 교육은 잇솔질 방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습관화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5)</sup>

구강위생관련용품 소지여부는 '껌, 사탕류'가

보건계열이 78명(44.8%), 비보건계열이 115명(6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보건계열이 99명(56.9%), 비보건계열이 133명(70.4%)으로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양치용액, 치실 순으로 나타났다( $p < 0.01$ ).

김<sup>12)</sup>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잇솔질만으로 구강건강관리가 부족한 부위는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이 권장되는데 56.1%가 구강용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15.3%만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등<sup>18)</sup>은 보조구강위생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권장되고 있는 것은 치실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자신의 구강에 맞게 선택하고 사용할 때 효과적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보조구강위생용품들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케일링 경험은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39.7%, 비보건계열 42.9%로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김<sup>17)</sup>의 연구에서는 스케일링에 대하여 꼭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전공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스케일링 경험역시 보건전공그룹에서 비보건전공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여부는 성별에 따라 '안 해도 상관없다'가 남녀 각각 58.4%, 5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계열에 따라서도 '안 해도 상관없다'가 보건계열 56.3%, 비보건계열 60.8%로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최<sup>19)</sup>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필요하다' 35.9%, '필요없다' 7.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바른 구강보건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의 전달이 필요하며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구강보건교

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비보건자들에게도 부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보건 계열자들에게도 습득한 구강보건지식을 바탕으로 구강건강관리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육성하는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17)</sup>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변수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충북에 위치한 Y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확대는 물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할 필요성이 있고, 여러 지역에서 표본이 추출되어야 하며 종단적인 연구방법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에 대한 구강보건인식도 및 구강건강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구강보건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고자 보건계열 174명과 비보건계열 189명으로 총 36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는 성별에 따라 남자가 하루 평균 1회 55.2%, 여자가 하루에 2회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에 따라서는 보건계열이 2회 89명(51.1%), 비보건계열이 1회 93명(49.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2. 잇솔질 시간은 성별에 따라 '2~3분 이상' 이 남녀 각각 96명(76.8%), 184명(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p < 0.01$ ), 식사 후 잇솔질 여부는 '그렇다' 가 남자 72명(57.6%), 여자 183명(7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 보건계열이 99명(56.9%), 비보건계열이 133명(70.4%)으로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하였다( $p < 0.01$ ).
4. 구강관련 관심분야에서 성별에 따라 남자는 충치예방이 56명(44.8%), 여자는 치아미백이 103명(43.3%)가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5. 스케일링 경험여부와 스케일링에 대한 인식 여부는 성별 및 계열에 따라 모두 '아니오' 와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권현숙, 이성숙, 이미옥 외. 구강보건교육학, 서울: 청구문화사, 2003:16.
2. 김수남. 한국 아동의 치은염에 관한 통계학적 고찰, 최신의학, 11:991,1968.
3. 대한치과외사협회. 한국인의 치과질환 실태 조사보고, 1983.
4. 김종배, 최유진, 백대일. 예방치학, 서울, 고문사, 1998.
5. 김종배, 최유진. 공중구강보건학, 서울; 고문사, 1997:34,
6. 김정순, 김철준, 문옥륜 외 8인. 일반보건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57-60.
7. Yarcheski AJ, Mahon NE: A casual model of positive health practices: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oach and reliant. Nursing Research 38(2):88-93, 1989.
8. Fardy PS, White RE, Calrk LT, Amocio G, Hurster MH, McDermott MH, Magel JR : Health promotion in minority adolescents: A health people 2000 pilot study. J Cardulm Rehabil 15(1) :65-72, 1995.
9. 임미영. 한국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예측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10. 이호연. 건강증진모형을 이용한 구강건강 행위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질병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11.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등. 공중구강보건학. 재개정판. 서울; 고문사, 2000:273-276.
12. 김영임.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1):23-33.
13. 서은정. 건강행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성,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
14. 이태현.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부산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석사학위논문 1997.
15. 김수화. 경기도 K대학 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도 조사연구. 경북대학논문집 2000.
17. 김재도. 구강보건관련 전공그룹과 비전공그룹간의 구강보건 인식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비교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1993.

16. 황미영. Scaling환자의 구강보건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제 13집 1996.
18.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진보형, 송현희.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2;16(2):493-504.
19. 최윤화. 경기지역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의 간식선호도 실태와 구강보건교육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2):93-104.

**Abstract**

# A Study on the Oral Health and Oral-Health Care of Some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Min-Young Lee, Ja-Hea Yoo

*Dept. of Dental Hygiene, Youngdong University*

Key words: Oral health behaviour,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ral health awareness and oral health care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in an attempt to stress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education and boost the efficiency of oral health car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63 college students. Out of the selected students, 174 were health-related majors, and 189 weren't.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and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1. Concerning daily mean toothbrushing frequency, the largest number of the male students who accounted for 55.2 percent brushed their teeth once a day on average, and the greatest number of the female students who represented 52.9 percent did that twice a day. As for the influence of their major, the largest group of the health-related majors who numbered 89(51.1%) brushed their teeth twice a day, and the greatest group of the health-unrelated majors who numbered 93(49.2%) did that once a day. The gaps between th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
2. As to the length of toothbrushing time by gender, it took more than two or three minutes for the largest groups of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that respectively numbered 96(76.8%) and 184(77.3%) to do toothbrushing( $p < 0.01$ ). The greatest groups of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that respectively numbered 72(57.6%) and 183(76.9%) brushed their teeth after meals.
3. In regard to oral hygiene supplies, the largest groups of the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that respectively numbered 78(44.8%) and 115(60.8%) had chewing gum and candy with

them. As to the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99 health-related majors(56.9%) and 133 health-unrelated majors(70.4%) didn't put oral hygiene supplies to use. Thus, the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was statistically less common among the health-unrelated majors, and the gap between the two was significant( $p < 0.01$ ).

4. As for health-related concern by gender, the largest group of the male students that numbered 56(44.8%) showed the most interest in preventing dental caries, and the greatest group of the female students that numbered 103(43.3%) were most concerned about tooth whitening. The gap between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 but the track of their major mad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at.
5. Regarding the experience and awareness of scaling, the largest number of the students never got their teeth scaled regardless of gender and major, and the greatest group didn't care about scaling irrespective of gender and major, either, though they considered it advisable to do

접수일-2008.10.27    수정일-2008.12.16    게재확정일-2008.12.15